

하나님 나라 확장사역에 함께 하는 동역자님들께
평안하시지요?

여기는 무더운 전기입니다.비소리를 듣고 시원하다고 생각했는데 먼지냄새와 함께 끈적거림이
0더해집니다.미처 우의를 챙기지 못한 사람들은 출근길에 흠뻑 젖습니다.
그리고 잠시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우리의 일상은 또 시작됩니다

지난 3월에는 오안이를 만나고 왔습니다.3년전 ,7번째 심장병수술비를 후원하여 수술을 받은
13살의 여학생입니다.수술을 받고 고향으로 가기전 우리를 방문하여 얼굴사진을 남기는데
오안이는 만나지를 못했습니다.얼굴은 모르지만 해마다 크리스마스선물을 보내면 공책한페이지
편지를 적어 보내주었습니다.이번에는 꼭 가야겠다 마음먹고 일정을 잡아 다녀왔습니다.건강하고
이쁘게 자라있는 모습에 기뻐했습니다.하지만 청진후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정밀검사를
권유했습니다.해마다 심장병원에 검진을 받았다고 했는데...정기적으로 큰도시로 나와서 병원을
찾는다는 것은 많이 힘듭니다.경제적 어려운 가정환경에 갑자기 병원을 가야한다는 말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얼른 지갑을 열어 교통비와 검사비에 보태라고 켜어주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지만 오안이를 위해 함께 기도한다고 약속했습니다 .

올해로 54번째 심장병수술비후원을 하였습니다.처음에 시작은 현지교회안의 심장병아이들을 위한
수술비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그러다 호치민의대에 심장병수술을 받지 못하고 후원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의 심장센터와 사역을 계속해가고 있습니다.우리가
1인당 1500불(한채의 평범한 집건축비/2015년기준)을 지원하면 수술비가 그 이상이 되면 병원이
부담하고 그 이하가 되면 또 다음환자를 위해 이월 해 주고 있습니다.그리고 우리에게 건네주는
영수증에는 거즈한장사용까지 상세하게 기록된 서류를 넘겨주
었습니다.

심장병 수술만 받게 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지만 올해부터는
한가정한가정을 찾아 다니기로 했습니다.그들은 우리를
의심없이 방문을 허락해줍니다.그들의 사는 환경을 보며
함께 교제하고 어려움을 나누기도 하고 복음도 제시하고
가까운 현지교회도 제시하고..

아이들이 사는 곳이 베트남 땅의 17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찾아가는 발걸음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기를 ,

*현지인과의 만남을 감시당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과
눈을 만져주시기를

*각 가정마다 예수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아이들 심장병수술비지원사역의 지속과 수술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올해는 5명의 기독교대학생을 만났습니다.

해마다 학비를 지원해주기로 하였는데 기독교대학생을 찾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한해 1-2명의 두학기 학비를 지원해주었는데, 올해는 다른 선생님들의 사역현장에서 만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중 의대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노엘인데 소수부족출신이며 공부 후 자기 종족들의 복음화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다짐을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솔직히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의료계열의 학생을 찾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 *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사회에 진출하면 기독교인에 대한 차별로 어려움을 겪는데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아가도록
- * 장학사업으로 맺어진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며 이들도한 사회진출 후 함께 이 사업을 이어 나아가도록



3년전부터 시작한 농아교회사역을 다녀왔습니다.다른 선생님의 사역현장인데 의료분야의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특pecially 작년에는 다니는 클리닉의 도움으로 종합검진을 받게해주었습니다.

생애 처음 받아본 건강검진이었습니다.올해 또한 그들과 소리없는 마음의 예배를 드리며 진료를 감당하였습니다.해마다 농아교회의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함께 사역에 동참한 한인 교회의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은 감동과 다짐을 가지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농아들의 예배처소가 한곳으로 정해져서 계속모임이 이루어지기를....

올해 모이고 있는 현지교회에서는 담임목사님의 배려로 예배후 한끼의 식사교제를 나누고 돌아가도록 관심을 가져 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농아인인 경우 자녀들의 정상적인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부모들이 특별한 직업이 없습니다.길거리에서 복권을 팔거나 하루 생계를 위해 소일을 하는 이들에게 자녀교육은 어렵습니다.아이들은 정상인인데...



작년 12월 한인 선생님이 무료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월남전에 참전하였으며 속죄하는 마음

으로 사랑과 화해의 손길을 나누며 어린이 장학사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몸이 피곤하다며 찾아와선 영양제를 맞고 돌아갔습니다.그런데 지난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올 초 한국을 돌아가선 암 말기를 진단받았습니다.이곳에서 선생님들의 육신의 아픔을 만져주기도 하였는데 여러모로 부족함을 알았습니다.하나님은 클리닉을 오픈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많은 시간을 기다리며 기도하였는데 이제 인가 됩니다.

입원실이 없는 건강검진센터시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지금까지 마음의 결심을 기다리며 기도하였던 것을 그분은 아십니다.

현지의 모든 상황과 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5여년을 허가없이 무료진료실을 하였습니다.현지인,한국인,필리핀,조선족등..

특히 현지 목회자들,한인선교사들..

무료진료실의 운영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주셨으며 의약품과 모든 사소한 것을 채워주심을 많은 곳을 거쳐 마지막에 찾아와서 나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을 보았고 약가방을 싸서 캄보디아까지..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현지 목회자와 가난한 이들과 이땅에 나와 있는 많은 선교사들에게 의료의 도움과 함께 주의 나라확장사업에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손모아주시시오

- 1.모든 상황에 감사하며 나아가도록,항상 성령충만하도록
- 2,한국에서 있는 은혜와 덕용이,고3인 덕민이를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도록
- 3,양가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
- 4.클리닉오픈을 위한 모든 상황이 순적히 이루어지도록...,한국과 달리 어려운 법적인 문제